**마1111 Note**

**◆ 세례 요한의 의구심 : 예수님이 메시야이신가 아니신가?**

1.모세와 엘리야

모세 : 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엘리야 : 침례 요한을 포함하는 대언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 누가 더 큰가?

민1206.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니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약 너희 가운데에 대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 자신이 그에게 알려지게 할 것이며, 또 꿈 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민1207.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진실하니라.

민1208. 그와는 내가 입과 입을 마주하여 곧, 명료치 않은 말들로가 아니고 바로 명백하게 말할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외관을 그는 보느니라, 그렇다면, 내 종 모세를 거슬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 하지 않았더냐?

모세와 엘리야, 이중에 누가 더 큰가? 물론 모세가 더 크다.

침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이며,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시다.

2. 나와 같은 대언자

신1815.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대언자를 네게 일으키실 것이니라, 그에게 너희는 경청할지니라.

그 어떤 대언자도 <나와 같은 대언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모세만 그렇게 말했다.

모세는 예수님의 전형적인 모형이다.

히0302. 모세가 그분의 모든 집에서 신의가 두터웠던(진실했던) 것과 같이, 그분 역시 자기를 지명하신 그분께 신의가 두터우셨느니라(진실하셨느니라).

Ω히0303. 이는 집을 세운 그가 그 집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갖는 까닭에, 이 분이 모세보다 더한 영광에 합당하다고 여겨졌음이라.

3. 대언의 대상이 된 침례요한

말0301.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느니라. 또 너희가 찾는 여호와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로 가노니, 너희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혈약의 바로 그 사자라. 보라, 그가 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다른 대언자는 대언을 했지만, 그 자신이 대언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대언의 대상이 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요한은 다른 대언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4. 침례 요한의 대언 : 그가 그리는 메시야의 모습

마0312. 그분의 풍구(風具,키)가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그분께서 자기의 마당을 완전히 정화(淨化)시켜 그분의 밀은 곡간으로 모으실 것이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왕겨를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실 것이니라.

Ω요0129.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그가 세상 죄를 치우느니라 (아이로: 들어 올리다,일으키다,취하다, 치워버리다, 소리를 높이다,마음을 졸이다,항해하다,닻을 올리다,죄를 속하다,없이 하다,지탱하다,운반하다,느슨해지다,의심하다,제거하다,데리고 올라가다)

요0136. 그리고 그분께서 걸어가실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말하니라,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5.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

창기와 세리와 식사하시는 예수님

6. 구약에 속한 대언자인 침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그는 보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의 신약 세계의 문 밖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12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거나, 같이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자들보다 작았다,

예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아는가, 직접적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지닌 자는 의심하는 자보다 더 크다.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

참 신자가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에 관해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참 신자는 그러한 면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7. 일어난 적이 없었다.

태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침례 요한 자신의 크기가 아니라, 그의 사역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모세의 사역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크기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신3410.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애굽 땅에서 파라오에게 행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내셨던 모든 표적들과 놀라운 것들 안에서①, 그리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보여주었던 그 온갖 세력있는 손 안에서와 온갖 대단한 무서움 안에서②, 여호와께서 그를 얼굴을 마주하며 아셨느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직접 대면하는 자가 더 크다.

8. 설교자의 박식함에 압도되어, 같이 묻혀오는 고추가루(미심쩍거나, 거슬리는 것)를

받아들이지 말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므로, 지식이나 박식함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식과 머리 이상의 존재이다.

우리는 영으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

요1613. 그러나 진리의 영(靈)인 그가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에로 안내하실 것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음이라, 대신에 그가 듣는 무엇이든, 그것을 그가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가 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1요0227.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았던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머무르나니, 어떤 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 대신에 바로 그 기름부음이 모든 것들에 관해 너희를 가르치는 대로 진실(진리)이며 거짓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가르치셨던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서 머무를지니라.

성령님께 경청하십시요.